

피와 눈물로… 진실·명예회복·보상 끌어낸 주체

(목차)

- 제1부 되짚어 본 5·18
-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노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⑥ 5·18 단체가 걸어온 길

신군부세력의 빠진을 요구하며 전개한 '5·18 민중항쟁'은 수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희생당한 뒤에야 비로소 끝이 났다. 이후 피해 당사자와 가족, 시민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각각 단체를 구성한 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5월 관련단체는 5·18 민중항쟁이 단순한 집단 항거가 아닌 신군부의 반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을 알리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단체 간 민주화 투쟁의 방법이나 이론의 차이,

피해자·가족·시민단체별 다양한 목소리

난립·반목도… 통합 민주화 세력 거듭나야

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학력 및 성향에 따른 이질감 등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은 시·도민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단체가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자신만의 주장을 이해를 벗어나 지역주의의 장벽을 해소하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5월 관련단체는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었다. 이후 1999년에는 유가족·부상자·구속자 등 3개 주요단체와 그외 5·18 광주의 거청년동지회, 5·18 상이후 사망자 유족회, 5·18 광주민중항쟁 민주기사동지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족회 등 4개 단체가 주로 활동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을 거듭한 5월 관련 주요 단체는 지난달 31일 현재 법인화된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와 '(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 5·18 구속부상자회' 등 3개이다.

부상자회는 주로 불우회원 후원 사업과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회원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등에 주력해왔다. 구속자회도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사회운동을 통한 5·18 정신 승화 사업, 지역간 화해 및 국민 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심

을 기울여 왔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된 활동은 90년 후반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투쟁과 5·18 재판 투쟁이다. 이어 국가보훈대상자 지정, 망월동 묘지의 국립묘지로의 승격, 학살자들에 대한 서훈·처벌 등을 관찰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묘역 성역화 사업(묘지 이장·유골감정·무명열사 신원확인 등)과 피해자 치료 및 재활 복지센터 건립운동, 상무대 법정 및 영창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5월 관련단체의 가장 큰 업적은 5·18 진실규명 활동에 하나가 돼 나섰다는 점이다. 이 같은 꾸준한 진실 규명 작업은 광주 민주

■ 5월 피해자·가족 개별단체 주요 현황

단체명	개별사업	공동사업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무명열사 신원확인, 암매장 발굴 등	• 5·18 책임자 처벌 및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운동
(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일해공원 명칭 반대 성명서 발표 5·18 민주화운동 생활실태 및 후유장애 실태조사	•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운동
(사) 5·18 구속부상자회	상무대 법정 및 영창 복원사업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5월 관련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1989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위). 5·18 희생자 유족들이 1997년 5월 4일 광주시 북구 망월 묘역에서 17년간 잠들어 있던 유해를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묘역 성역화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얻어낸 결과다.

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단체들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해 3개 단체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뒤 각 지역의 민주

세력과 상호연대·협조 체제를 정립, 전국화를 시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부마항쟁과 4·3 사건 등 군부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 등과도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ju.co.kr

서른살의 5·18에게

허연식

“이합집산 거듭한 5·18 단체

30주년 맞아 마침내 하나로”



1980년 5월 30일 망월동 공원묘지 제3묘원, 비닐에 싸인 채 가족을 둘어야했던 유가족들이 모였다. 5·18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는 명칭이 없었으나 한 달 후 다시 모인 가족들은 '광주의 거족회'를 구성하고 읊을하고 비통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에게 들씌워진 폭도와 불순분자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거리로 나서 투쟁을 시작했다.

5·18 단체는 1980년 유족회를 시작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구속자들의 구명을 위해 모인 구속자 가족회,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구속자들이 석방되면서 구속자 협회가 만들어지고 1982년 부상자회가 서슬 펴린 탄압 속에서 어렵게 결성되었다.

광주학살의 원죄를 지우려는 당시 군사정권은 5·18 단체의 진상규명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회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위를 위해 모이면 차에 심고 강원도까지 격리를 하기도 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이들의 만행은 벽지와 오지에 회원들을 내버려두고 돌아오기도 했다.

1982년 12월 5·18 희생자들이 문에 있는 망월동 공원묘지 제3묘원 자체를 없애기 위해 희생자들의 묘를 이장시키는 만행 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모두 26기의 희생자가 이장되었고, 이장에 동의하거나 협조한 유족들이 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또 하나의 5·18 유족회를 만들었다.

5·18 단체의 첫 분열이었다. 이어서 부상자회도 비슷한 상황에 의해 둘로 나뉘어졌다.

1990년 5·18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5·18 단체는 새로운 단체들이 구성되었고, 보상이 끝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일정하게 드러나고 국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5·18 단체는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1990년대 초에는 10여개의 단체가 구성되었고, 이 단체가 함께 모여서 '5·18 민중항쟁연합'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5·18 기념제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합이 해체되면서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5월 18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제도적 명예회복이 실현된다.

그리나 여전히 5·18 단체는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법 단체로 등록하지 못한 채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로 나뉘어져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30주년을 맞는 새해 첫날, 5·18 단체의 임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5월 영령과 지역민들의 영원대로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은 결국 5·18 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 공법 단체가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 단체 통합추진위원회 간사)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제1회 경매	제2회 경매	제3회 경매	제4회 경매	제5회 경매	제6회 경매	제7회 경매	제8회 경매	제9회 경매	제10회 경매	제11회 경매	제12회 경매	제13회 경매	제14회 경매	제15회 경매	제16회 경매	제17회 경매	제18회 경매	제19회 경매	제20회 경매	제21회 경매	제22회 경매	제23회 경매	제24회 경매	제25회 경매	제26회 경매	제27회 경매	제28회 경매	제29회 경매	제30회 경매	제31회 경매	제32회 경매	제33회 경매	제34회 경매	제35회 경매	제36회 경매	제37회 경매	제38회 경매	제39회 경매	제40회 경매	제41회 경매	제42회 경매	제43회 경매	제44회 경매	제45회 경매	제46회 경매	제47회 경매	제48회 경매	제49회 경매	제50회 경매	제51회 경매	제52회 경매	제53회 경매	제54회 경매	제55회 경매	제56회 경매	제57회 경매	제58회 경매	제59회 경매	제60회 경매	제61회 경매	제62회 경매	제63회 경매	제64회 경매	제65회 경매	제66회 경매	제67회 경매	제68회 경매	제69회 경매	제70회 경매	제71회 경매	제72회 경매	제73회 경매	제74회 경매	제75회 경매	제76회 경매	제77회 경매	제78회 경매	제79회 경매	제80회 경매	제81회 경매	제82회 경매	제83회 경매	제84회 경매	제85회 경매	제86회 경매	제87회 경매	제88회 경매	제89회 경매	제90회 경매	제91회 경매	제92회 경매	제93회 경매	제94회 경매	제95회 경매	제96회 경매	제97회 경매	제98회 경매	제99회 경매	제100회 경매	제101회 경매	제102회 경매	제103회 경매	제104회 경매	제105회 경매	제106회 경매	제107회 경매	제108회 경매	제109회 경매	제110회 경매	제111회 경매	제112회 경매	제113회 경매	제114회 경매	제115회 경매	제116회 경매	제117회 경매	제118회 경매	제119회 경매	제120회 경매	제121회 경매	제122회 경매	제123회 경매	제124회 경매	제125회 경매	제126회 경매	제127회 경매	제128회 경매	제129회 경매	제130회 경매	제131회 경매	제132회 경매	제133회 경매	제134회 경매	제135회 경매	제136회 경매	제137회 경매	제138회 경매	제139회 경매	제140회 경매	제141회 경매	제142회 경매	제143회 경매	제144회 경매	제145회 경매	제146회 경매	제147회 경매	제148회 경매	제149회 경매	제150회 경매	제151회 경매	제152회 경매	제153회 경매	제154회 경매	제155회 경매	제156회 경매	제157회 경매	제158회 경매	제159회 경매	제160회 경매	제161회 경매	제162회 경매	제163회 경매	제164회 경매	제165회 경매	제166회 경매	제167회 경매	제168회 경매	제169회 경매	제170회 경매	제171회 경매	제172회 경매	제173회 경매	제174회 경매	제175회 경매	제176회 경매	제177회 경매	제178회 경매	제179회 경매	제180회 경매	제181회 경매	제182회 경매	제183회 경매	제184회 경매	제185회 경매	제186회 경매	제187회 경매	제188회 경매	제189회 경매	제190회 경매	제191회 경매	제192회 경매	제193회 경매	제194회 경매	제195회 경매	제196회 경매	제197회 경매	제198회 경매	제199회 경매	제200회 경매	제201회 경매	제202회 경매	제203회 경매	제204회 경매	제205회 경매	제206회 경매	제207회 경매	제208회 경매	제209회 경매	제210회 경매	제211회 경매	제212회 경매	제213회 경매	제214회 경매	제215회 경매	제216회 경매	제217회 경매	제218회 경매	제219회 경매	제220회 경매	제221회 경매	제222회 경매	제223회 경매	제224회 경매	제225회 경매	제226회 경매	제227회 경매	제228회 경매	제229회 경매	제230회 경매	제231회 경매	제232회 경매	제233회 경매	제234회 경매	제235회 경매	제236회 경매	제237회 경매	제238회 경매	제239회 경매	제240회 경매	제241회 경매	제242회 경매	제243회 경매	제244회 경매	제245회 경매	제246회 경매	제247회 경매	제248회 경매	제249회 경매	제250회 경매	제251회 경매	제252회 경매	제253회 경매	제254회 경매	제255회 경매	제256회 경매	제257회 경매	제258회 경매	제259회 경매	제260회 경매	제261회 경매	제262회 경매	제263회 경매	제264회 경매	제265회 경매	제266회 경매